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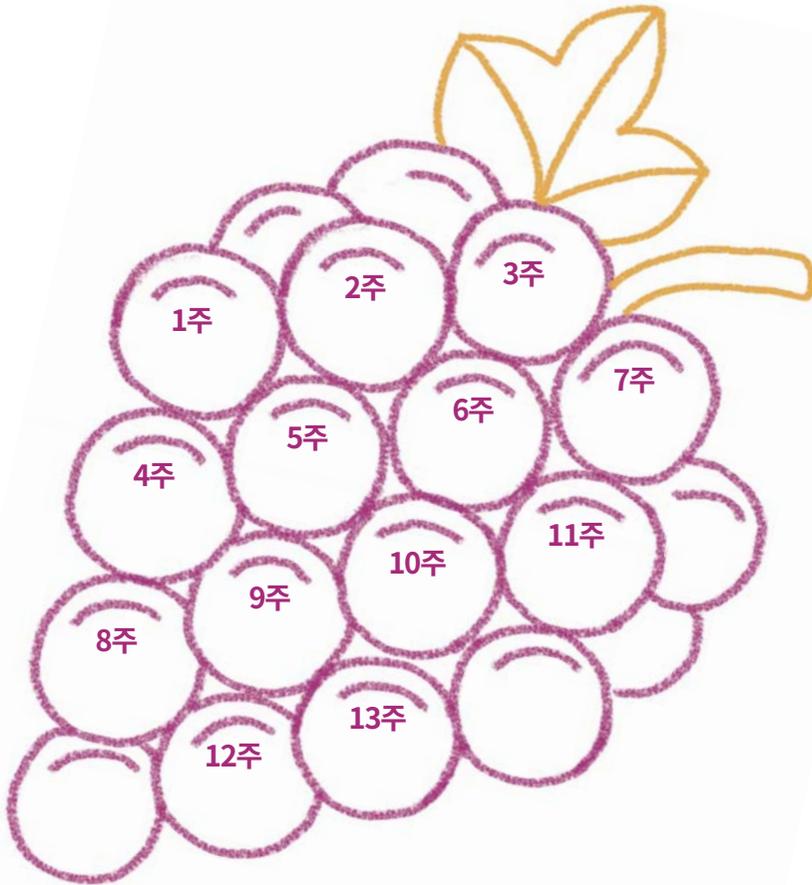
새로움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길, 2018년!

2018 1·2·3

가정예배 자료집

가정예배 포도나무

매주 가정예배를 드리고,
포도나무를 하나씩 색칠해보세요!



1-3월 세 달 동안 가정예배를 8회 이상 드리신 가정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가정예배 포도나무’를 가지고 방문하세요)

일시 4월 1일(주일) 오전 9시 - 오후 3시

장소 베다니광장 가정예배자료집 배부처

서약서

우리는 가정예배 공동체로서 가정예배를 실천하기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 첫째, 우리 가정은 교회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 둘째,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 셋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서약자: _____ 서명

목차

Contents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 데이) 소개	05
1·2·3월호 소개 - "새로움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길, 2018년!"	06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08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09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12주 실제)

1주	01.07 ~ 01.13	질서있고 화평한 교회	12
2주	01.14 ~ 01.20	거룩한 산 제물	14
3주	01.21 ~ 01.27	한 몸 공동체, 교회	16
4주	01.28 ~ 02.03	서로 우애	18
5주	02.04 ~ 02.10	배려하는 우리 가족	24
6주	02.11 ~ 02.17	화해하는 우리 가족	26
7주	02.18 ~ 02.24	자녀됨과 부모됨	28
8주	02.25 ~ 03.03	내가 택한 나의 그릇	30
9주	03.04 ~ 03.10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36
10주	03.11 ~ 03.17	십자가, 사랑과 순종의 선택	38
11주	03.18 ~ 03.24	잃은 양을 찾는 목자	40
12주	03.25 ~ 03.31	감사기도	42

교육부 주요활동	46
인증샷 안내 및 책 소개	50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데이) 소개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는 사건이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미 열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며, 예배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삶을 드리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롬 12:11-2, 요 4:23-24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 가족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가족은 예배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 새 출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공유하게 되고 서로의 삶이 예배를 통해 묶여지게 되며, 신앙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예배는, 그러므로 가정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배로 가득차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초 위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 먼저 가족이 함께 예배함으로 세웁시다.

『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
* 시 133:3 *

패밀리데이는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배 안에서 회복하는 영락의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새로움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길, 2018년! 1-3월호를 시작하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로마서 12:2 **

< 새로움, 설렘 >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은 항상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설레는 이유 중 하나는 2018년이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여도, 어른이여도 누구에게나 새 해는 새로운 시간, 가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롬 12: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변화를 기대하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새로움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설렘 속에 기대하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종종 ‘익숙함’이 새로움을 발견하는 데 방해가 되고는 합니다. 신앙도 그저 익숙함에 머물다 보면 관성이 되고, 관성은 종종 신앙의 참된 의미와 열정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대하는 설렘과 새로운 시작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마음의 새로움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 헨델 이야기 >

헨델은 40년 동안 영국과 유럽에서 오페라 음악의 작곡가로 이미 명성을 얻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명성도 점차 덧없어 보였습니다. 삶의 의미와 열정을 잃어버렸고, 나이가 한참 들었던 1741년 8월 그는 그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고 심지어 뇌출혈로 몸의 한 부분이 마비되어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그에게 어느 날 찰스 기본이라는 한 시인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경 구절을 기초로 만든 시를 내어주며 이 시로 작곡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움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길, 2018년!"

**‘그는 멸시를 받아 ...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를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처음 무심코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의 구절이 점차 헨델의 마음의 상처들을 어루만지기 시작했고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끝 구절을 읽고 그는 곧바로 펜을 움켜잡았습니다. 작곡을 해 가는 중 그는 자주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고, 이후 21일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작곡에 매진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곡 헨델의 “메시아”가 작곡된 것입니다. 이 작곡을 마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앞에 천국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메시아가 처음 연주된 후 그는 결국 장님이 되었지만 그의 마지막 생애 6년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헨델의 삶이 어떻게 다시 새로움으로 채워졌을까요? 한 시인이 전해 준 말씀으로 된 시가 그의 영혼을 새롭게 깨우고 위대한 명곡의 탄생으로 이끈 것입니다.

〈 가정 신앙의 새로움을 위하여 〉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가정 예배를 통해 그리고 그 속의 말씀을 통해 신앙과 가정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1월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드러지는 믿음의 삶의 기초를 세우고자 합니다. 2월은 성경 곳곳의 말씀을 통해 가족이 하나 되는 기초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 학년을 준비하고 맞는 2월 말과 3월 초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정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3월의 시간들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자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가족의 하나 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가정의 신앙이 새로움으로 덧입혀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가정예배를 통하여

1.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2.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며
3.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4. 자녀를 다음세대의 예배자로 세워나간다.

우리 가족 약속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요일, 시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합니다.
(예: 거실, 부엌식탁 등)

1. 예배인도자는 기도자를 정하고, 예배에 필요한 주제송 음원과 예배자료집을 미리 준비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www.youngnak.net)
2.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이나 일인 가족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정예배 에티켓
 - 1)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 2) 휴대폰과 TV는 꺼둡니다.
 - 3)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 찬양

주어진 찬양을 가족과 함께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달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23p

2 말씀읽기 (개역개정)

한주간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가족이 다함께 또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말씀읽기 - 요한일서 1:1-4

3 생각하기

말씀을 중심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해봅니다.
가족의 생각과 다짐을 함께 나눕니다.



생각하기

4 말씀듣기

말씀의 배경을 함께 알아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내용을 읽어주며, 다른 가족은 경청합니다.



말씀듣기

5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며 기도로 마칩니다.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고 주어진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JANUARY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신년예배	2	3	4	5	6
신년기도회						
7	8	9	10	11	12	13 교육부 신년교사기도회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달의 찬양

♫ 내 안에 부어주소서



A C#m F#m C#m

내 안에 - 부어 주소서 - 성령의 - 충만한 기쁨을 -

5 D A Bm E

내 안에 - 충만케 하소서 - 성령의 - 기쁨으로

9 D Dm C#m F#m

내 기쁨 - 가득할 - 때 주의 복 - 음 전할 수 있 - 네 -

13 D Dm Bm E

내 기쁨 - 가득할 - 때 주의 사 - 랑 베푸 네 그 날 에

17 A E F#m C#m

우리 주 - 님께서 - 밤 중 - 에 찾아 오 - 실 때에 -

21 D A 1. Bm E

기쁨 준 - 비된 자 만 이 - 잔치 자 리 들 - 어 가 네 - 그 날 에

25 2. Bm E A

자 리 들 - 어 가 네 -

1/7-13

1주 가정예배

질서있고 화평한 교회

고린도전서 14:33 상, 시편 85:10



이달의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11p



말씀읽기 - 고린도전서 14:33 상, 시편 85:10

고린도전서 14장

33 상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시편 85편

10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생각하기

Q1.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주신 선물 (성격, 재능)을 나누어 봅시다.

Q2. 생각이 달라서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듣기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선물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선물은 서로 돕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편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출신에 따라 몰려다녔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가 옳다고 여겼습니다. 영적인 선물도 자기를 뽑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배 시간도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는 바람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서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서로 인정하며 질서를 따를 때 교회는 화평하게 됩니다.



기도

하나님, 서로 생각이 달라도 질서 있고 화평하게 지내는
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 / 1

2

3

1/14-20

2주 가정예배

거룩한 산 제물

로마서 12:1-2



이달의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11p



말씀읽기 - 로마서 12:1-2

- 0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 0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하기

- Q1.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확실히 구원받았음을
믿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 Q2.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삶 속에서 어떻게 드리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나눠보고
앞으로의 삶 또한 결단해 봅시다.



말씀듣기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설명함과 동시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런 후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구원 받은 자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 영적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형식을 갖춘 예배뿐 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매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세대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 이 세대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
/
2

2

3



한 몸 공동체, 교회

로마서 12:3-8



이달의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11p



말씀읽기 - 로마서 12:3-8

- 0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 0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 0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 0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0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08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생각하기

- Q1. 몸의 각 부분이 다양하게 활동할 때 온전한 몸이 되듯,
교회도 각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때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역할로 섬기는 사람들을 떠올려보며 감사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 Q2. 가정도 각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때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섬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말씀듣기

한 사람이 사람답게 활동하려면 몸의 각 부분이 다양한 역할을 잘 수행해주어야 합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 등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기에 지금도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교회가 이런 몸과 같다고 말합니다.^{5절}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 중 누군가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성경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누군가는 어려움 당한 사람을 잘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또 누군가는 찬양을 잘 부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재능)에 따라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의 지체로서 누구는 찬양과 울동, 누구는 기도, 누구는 청소 등 다양한 역할을 각자 잘 수행할 때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몸과 같은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몸의 한 부분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28-2/3
4주 가정예배

서로 우애

로마서 12:9-13



이달의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11p



말씀읽기 - 로마서 12:9-13

- 09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 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 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생각하기

- Q1. 나는 사랑한다고 말할 때, 말뿐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진짜 행동으로도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사랑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 Q2. 사랑은 따뜻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내 가족과 교회의 친구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듣기

우애라는 말은 형제간이나 친구간의 사랑이나 정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정은 따뜻한 느낌을 가진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우애라는 말을 형제나 친구를 넘어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자녀 된 우리들은 마땅히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동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내가 다니고 있는 공동체 즉, 내가 속한 모임의 모든 형제나 이웃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다하듯 나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가 우리의 가족처럼 진짜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우애있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나도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전달하는 우애있는 모습을 통해 진짜 따뜻한 예수님의 가족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고 전할 수 있는 우애 있는 나와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 / 4

2

3

메모 MEMO







FEBRUARY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설날 17

18 19 20 21 22 23 24

사순절
첫번째주일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

25 26 27 28

사순절
두번째주일

이달의 찬양

기뻐하며 왕께 노래부르리



G C D

기 뻐 하 며 왕 께 노 래 부 르 리 - 소 리

5 G C D

높 여 할 렬 루 야 부 르 리 - 주 님

9 Em C D

앞 에 나 와 찬 양 드 리 며 - 우 리

13 G/B C G

주 님 과 함 - 께 기 뻐 하 리 라 - 나의 창 조

17 C G

- 자 나의 구 원 - 자 가장 귀 한

21 Am D G

나 의 예 수 님 - 찬 양 합 니 - 다 나의 치료

25 C G D/F# Em

- 자 나의 선 한 목 자 되 - 신 주 - 예 수

29 C D G

나 의 주 찬 양 하 리 -

2/4-10
1주 가정예배

배려하는 우리 가족

창세기 13:1-13



이달의 찬양 <기뻐하며 왕께 노래부르리> 23p



말씀읽기 - 창세기 13:1-13

01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02 아브람에게 가족과 은과금이 풍부하였더라 0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벰엘에 이르며 벰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04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05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06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0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족의 목자와 롯의 가족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0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0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생각하기

- Q1. 가족 간의 갈등의 상황이 생길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나의 행동을 돌아봅시다.
- Q2. 갈등의 상황이 생길 때 내가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해 봅시다.



말씀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아브람과 아내 사래, 조카 롯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아주 많은 가축과 소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서 네게브로, 네게브에서 벰엘로 이주를 했습니다.

벰엘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주를 시작하려고 보니 그 땅은 그들 모두가 살기에는 좁았습니다. 좁은 땅에서 많은 양과 소 등을 키우면서 아브람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가 서로 영역 싸움을 하였고,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브람은 롯을 먼저 배려하였습니다. 아브람은 롯이 먼저 가고 싶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자신은 다른 곳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8-9절).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람의 사랑의 배려를 기뻐하셨고, 언제나 아브람과 함께하며 아브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브람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며,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이달의 찬양 <기뻐하며 왕께 노래부르리> 23p



말씀읽기 - 창세기 45:1-10

01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02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03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0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05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06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발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0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0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09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0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생각하기

- Q1.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우리 마음에 먼저 해야 할 작업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내용을 나의 말로 이야기 해 봅시다.
- Q2. 과거를 따지거나 원망하기 보다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고, 신앙적 비전을 발견할 때 진정한 화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떠오르는 화해해야 할 일이 있나요?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화해를 결단해 봅시다.



말씀듣기

요셉은 형들의 계략으로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 갖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가뭄을 피해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자신이 애굽으로 오게 된 이유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손들이 태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7절}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의 잘못된 행동을 탓하고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애굽으로 온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경험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다시 만나게 된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으로 인해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었고, 요셉과 형제들에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기도

하나님,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가정이 되게 도와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자녀됨과 부모됨

에베소서 6:1-4



이달의 찬양 <기뻐하며 왕께 노래부르리> 23p



말씀읽기 - 에베소서 6:1-4

- 0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 0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 0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 0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생각하기

- Q1.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며 따르고 있었나요?
자녀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 Q2. 나는 세움 받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며 양육하였나요?
부모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말씀듣기

가족 안에는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맺어주신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 중 오늘 본문은 자녀 된 자들이, 그리고 부모 된 자들이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먼저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마음 깊이 그분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듯 부모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존재인 자녀를 사랑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바르게 교훈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욕심이 앞서서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됨과 부모됨은 서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힘써 노력하는 온 가족이 되기로 노력합시다.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관계 속에서 서로를 예수님을 대하듯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

2

3

3

2/25-3/3

4주 가정예배

내가 택한 나의 그릇

사도행전 9:10-19



이달의 찬양 <기뻐하며 왕께 노래부르리> 23p



말씀읽기 - 사도행전 9:10-19

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생각하기

- Q1.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나요?
- Q2.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선뜻 찾아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말씀듣기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13절}

그러나, 예수님은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도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15절}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해도, 소문이 어떠한지라도, 예수님은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나쁜 사람이지만, 예수님에게 사울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도구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

하나님, 부족한 저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

2

4

3

메모 MEMO





3 MARCH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삼일절 2 3

4 5 6 7 8 9 10

사순절
세번째주일

11 12 13 14 15 16 17

사순절
네번째주일

18 19 20 21 22 23 24

사순절
다섯번째주일

25 26 27 28 29 30 31

종려주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성금요일

이달의 찬양

내 마음의 한 자리



A C#m D A

우리들을 위 하여 - 십자가에 못 박혀 -

5 F#m C#m D E

모든 죄를 - 용서 하사 - 의인 삼아 주 신 주 -

9 A C#m D A

어떤 일이 있 어도 - 나를 버리 지 않고 -

13 F#m C#m D E

죽기 까지 - 사랑 하신 - 나의 귀한 에 - 수 님 -

17 A C#m F#m D

내 마음의 한 자리 - 가장 귀한 그 자리 -

21 Bm E C#m F#m D E

주 오 서 서 - 앞 으 소 서 - 주 님 만 나 의 보 배 -

25 A C#m F#m D

내 마음의 한 자리 - 가장 귀한 그 자리 -

29 Bm E C#m F#m D E A

주 오 서 서 - 다 스 리 소 서 - 주 님 만 나 의 영 광

3/4-10
1주 가정예배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9:1-12



이달의 찬양 <내 마음의 한 자리> 35p



말씀읽기 - 요한복음 9:1-12

0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0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0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0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0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0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0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08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09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10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생각하기

- Q1. 어둠속에서 살아갔던 맹인의 모습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려봅시다.
- Q2.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주셔서 구원해주셨음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듣기

혹시 캄캄한 어둠속을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자칫 하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속을 한 평생 살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말씀에 등장하는 맹인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경험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일생토록 어둠 속에 살았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 말씀은 단순히 맹인 한 개인의 병 고침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캄캄한 어둠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주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주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기도

하나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십자가, 사랑과 순종의 선택

누가복음 13:31-35



이달의 찬양 <내 마음의 한 자리> 35p



말씀읽기 - 누가복음 13:31-35

- 31 곧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 32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 33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 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 35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생각하기

- Q1.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어렵고 아픈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 Q2.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피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씀듣기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헤롯왕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 때가 이르렀고, 헤롯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며 그의 간계함을 책망하셨지만, 죽음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 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헤롯에 의해 비록 죽임을 당하시겠지만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죽음과 삼일 후 부활이 꼭 필요한 일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며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

2

3
/
2



이달의 찬양 <내 마음의 한 자리> 35p



말씀읽기 - 누가복음 15:1-7

- 01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 02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 03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 04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 05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 06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 0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생각하기

- Q1. 나에게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그 때의 마음이 어땠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Q2.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은 양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말씀듣기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거리낌 없이 받아주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째서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양 백 마리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많은 양들 중 한 마리만 잃어도 모든 것을 내려둔 채 그를 찾아 나설 목자의 마음. 마침내 찾아냈을 때 온 이웃을 불러 기쁨의 잔치를 벌일 그 목자의 마음이 곧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여 죄인들을 무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양 잃은 목자의 마음으로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기도

하나님,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게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감사기도

누가복음 22:14-20



이달의 찬양 <내 마음의 한 자리> 35p



말씀읽기 - 누가복음 22:14-20

- 14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 15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 1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 17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 1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 19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생각하기

- Q1. 고난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 Q2.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저녁식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식사는 매일 갖는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식탁교제는 어떤 모습이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봅시다.



말씀듣기

유월절이 이르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¹⁵절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감당하셔야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의 길을 향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가 이르게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데 불러 모아 마지막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신 것입니다. 식사 시간에 예수님은 떡과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떡과 잔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 모습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절정,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가정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 가정의 마음을 담아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1·2·3월 교육부 주요활동

교육부

신년 교사 기도회	1.13 (토)
사순절 말씀 묵상 달력 배부	2.18 (주일)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	2.19 (월) - 24 (토)

사랑부

교사 신년기도회	1.20 (토)
봄맞이 성경학교	2.10 (토) - 11 (주일)
상반기 교사수련회	3.18 (주일)

영유아유치부 연합

유니게학교 지도자세미나	2.1 (목)
가족초청예배	2.11 (주일)
유니게학교 45기 개강	3.10 (토)

유년부

가족초청예배	1.28 (주일)
--------	-----------

초등부

신입교사 O.T	1.7 (주일)
가족초청예배	2.4 (주일)
사순절 묵상집 사뿐사뿐 배부	2.18 (주일)

소년부

신입교사세미나	1.14 (주일)
가족초청예배	2.4 (주일)

CEBC

겨울 성경학교	2.9 (금) - 10 (토)
스프링 페스티벌	3.25 (주일)

아동부 연합

봄맞이 성경학교	2.24 (토)
The Story Day (주말학교 안내 및 등록)	2.24 (토)
아동부 주말학교	3.17 - 4.21 (매주 토)

중등부

토요비전기도회	1.6 (토)
학부모초청예배	1.14 (주일)
겨울수련회 (Exodus)	1.26 (금) - 28(주일)
토요비전기도회	2.3, 3.3 (토)
심방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2.4 (주일) - 3.25 (주일)
사순절 절기예배	3.25 (주일)

고등부

예비 고1, 고3 특별양육	1.7 - 2.18 (매주일)
겨울수련회	1.18 (목) - 21 (주일)
졸업예배	2.18 (주일)

뒷장에 계속됩니다 ▶

1·2·3월 교육부 주요활동

베드로부

교사 수련회	1.12 (금) - 13 (토)
LTC	2.2 (금) - 3 (토)
베드로부 총회	2.11 (주일)
학원전도 1	2.22 (목)
학원전도 2	3.2 (금)
광장홍보	3.4 (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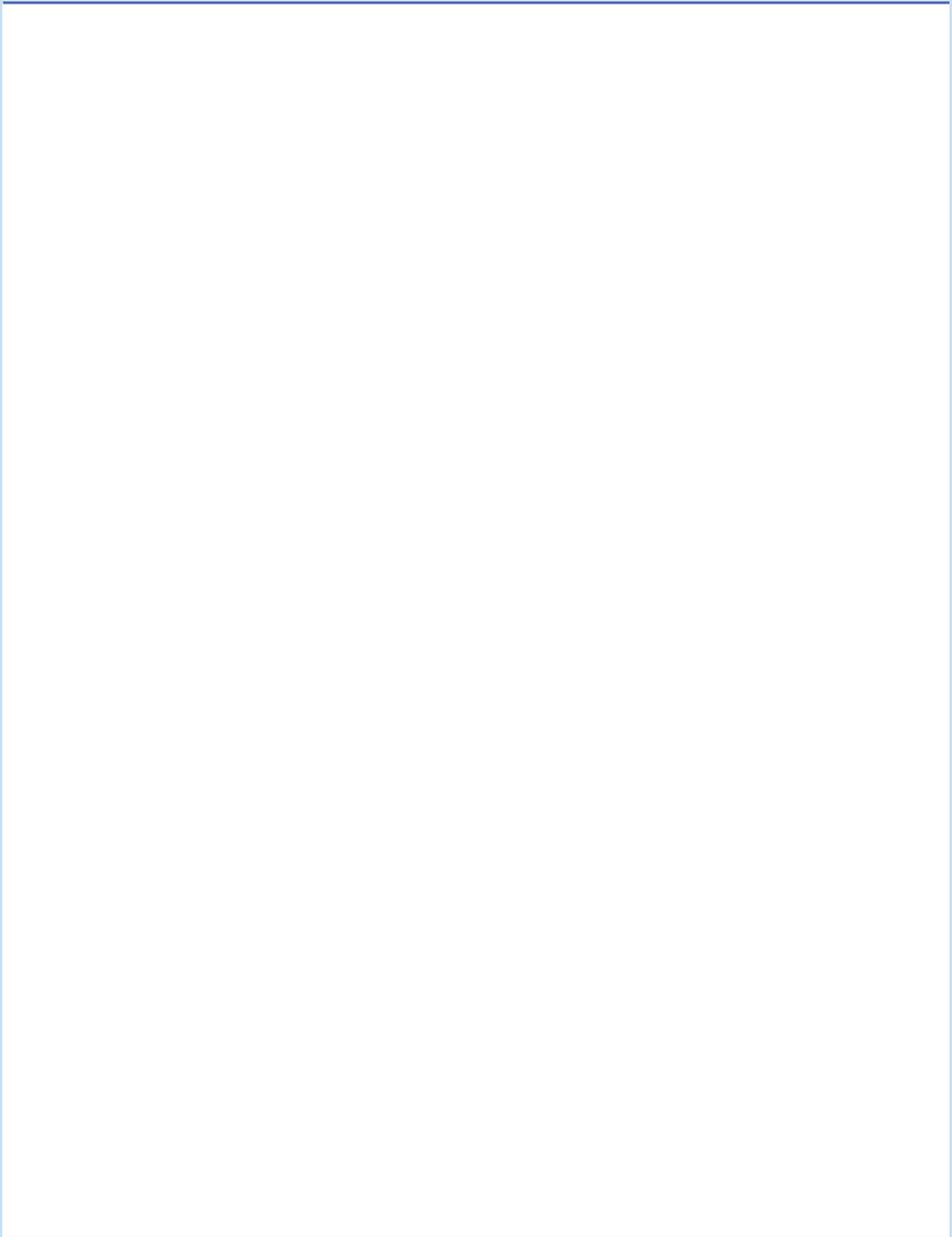
대학부

리더십컨퍼런스	1.5 (금) - 6 (토)
동계수련회	1.31 (수) ~ 2.3 (토)
해외단기선교(인도네시아)	2.6 (화) ~ 14 (수)

청년부

청지기 새로배움터	1.14 (주일)
전체수련회	3.1 (목)
리더훈련 개강	3.8 (목)
2018 세계관학교	3.9 - 30 (매주 금)

메모 MEMO



예배하는 가정 사진 공모



예배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가정에는 우측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출품 | ytw1104@naver.com / 교회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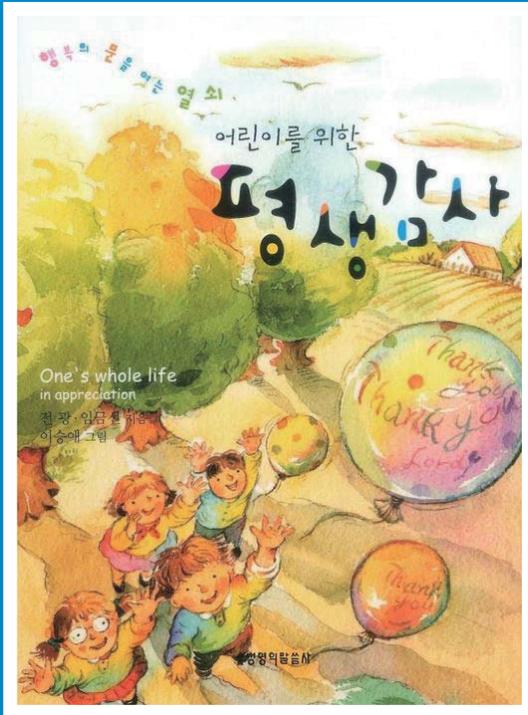
마감 | 2월 25일(주일)

문의 | 02-2280-0131 / 교육부

수령 | 4월 1일(주일) 오전 9시 - 오후 3시

장소 | 베다니광장 가정예배자료집 배부처

상품 도서



제목 어린이를 위한 평생감사
글 전광, 임금선
출판 생명의 말씀사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자를 떠올리면 경제적인 부자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들은 마음이 넉넉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부자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음의 부자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가족의 몸과 마음에 감사의 씨앗을 심어봅시다. 이를 통해 사랑과 행복의 튼실한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행통권 | 16호
발행일 | 2018년 1월 1일
발행인 | 이철신
기획인 | 백성우, 박남진
편집인 | 유태완
디자인 | 한수진
집필진 | 임현우 목사, 이대혁, 이사도, 서평화, 정선근
서평강, 김시규, 김한나, 서예림 전도사
주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 02-2280-0131
발행처 |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본 책의 내용은 무료 배부 됩니다. (www.youngnak.net)

책의 내용을 사용시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저작'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